



## Business is all around 콘텐츠 비즈니스로 방송의 가치를 높인다

KBS미디어 해외사업부 유상원 (정보미디어 MBA 09학번)

미디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작년 KBS 2TV에서 방영된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촬영 시작 전에 일본NHK 투자사와 선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하연 드라마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삽입해 20~30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KBS미디어에서 제작을 총괄한 '매리는 외박중'은 드라마 제작에 비즈니스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사례다. 그 중심에서 활약한 유상원 동문(정보미디어 MBA 09학번)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연출자의 콘텐츠 비즈니스 능력이 경쟁력이다

KBS미디어는 KBS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콘텐츠 마케팅 전문 회사다. 콘텐츠 수출에 기증으로만 연간 450억 원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콘텐츠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3년 전부터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접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유상원 동문은 KBS미디어에서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다가 지금은 콘텐츠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성공관스캔들', '도망자', '부자의 탄생' 등 각종 외주 제작 드라마의 사전 투자 업무를 맡았었고, 최근에는 프로그램 포맷 비즈니스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 비즈니스란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구성과 연출 기법을 정형화, 상품화해서 그 포맷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상원 동문은 현재 KBS의 '도전 골든벨 포맷을 상품화해서 해외판 '도전 골든벨'을 기획 중이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연출자로서의 경험과 감각을 겸비한 비즈니스 기획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상원 동문은 방송 연출자는 한 사람의 경영자와 같다고 말한다. 수많은 현장 스태프들을 통솔해야 하고, 재무, 회계, 인사와 관련

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작 업무가 고도화, 전문화되고, 제작비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다각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졌다. 드라마 제작에 수반되는 재무 구조와 사업 자간의 제휴 모델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유상원 동문은 이제 방송 연출자에게 경영학적인 역량은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 **방송 연출자는 한 사람의 경영자와 같다. 수많은 현장 스태프들을 통솔해야 하고, 재무, 회계, 인사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 정보미디어 MBA 네트워크는

#### 사회적 관계의 시작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서 유상원 동문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다. 방송 제작은 다양한 창조적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출연자와 연출자 그리고

그 이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스태프들 모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로서 손색이 없다. 미디어 비즈니스의 본질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관계'의 중요성은 쉽게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정보미디어 MBA의 경우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미디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네트워크는 큰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에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매리는 외박중'의 QR코드 마케팅 사례 역시 유상원 동문이 작년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학생들과 연계하여 진행한 프로젝트였다. 후배들에게 미디어 비즈니스의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고도의 창의성과 감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런 창조적 활동에 더욱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화된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유상원 동문은 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시작한 콘텐츠 비즈니스 일선에서 유상원 동문의 활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기를 바란다. ■